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통신보도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조 대 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통신보도활동을 강화발전시켜 혁명적출판보도물들이 전쟁승리에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통신보도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전시통신보도활동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목적, 야수성을 세계의 면전에서 낱알이 폭로하고 적들의 침략야망을 분쇄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결사적인 투쟁으로 국내의 모든 력량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강화하는것을 전시통신보도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전쟁에서 노리는 침략적목적과 우리 인민이 진행하는 전쟁의 성격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중앙통신사에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 조국에 대한 야만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목적, 야수성을 전세계에 폭로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이것은 전시환경에 맞게 당과 정부의 대변기관인 중앙통신사가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전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선전전, 전과전도 원썩격멸의 중요한 전투라고 하시면서 통신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계적규모에서 적들과 싸워야 하며 그것으로 외교도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대적선전전이 가지는 의의와 대적선전전에서 통신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 전시대적선전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야수성과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여 놈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약화시키는것을 전시대적선전전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적선전전의 기본방침은 세계인민들속에 미제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각성시켜 반제반미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대적선전전의 기본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통신사는 과녁을 명확히 잡아쥐고 대적선전전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출판보도물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결사적인 투쟁으로 국내의 모든 력량을 조직동원하도록 통신보도활동을 강화하는것을 통신사의 전시통신보도에서 나서는 중요문제의 하나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지성원을 획득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을 전시통신보도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규정해주시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세계적규모에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보시고 통신사가 세계인민들속에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널리 선전하며 그들과의 친선우호관계와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보도선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조선침략을 반대배격하는 국제여론을 더욱 광범히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미제의 죄행을 현지에서 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중앙통신사가 우리 나라에 오는 외국기자들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승용차도 보내주시고 취재조건,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통신사에서는 외국기자안내사업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미제를 단죄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조직진행하였다.

통신사는 주체39(1950)년 7월에는 중국, 영국, 프랑스의 기자들이, 8월에는 뿔스까를 비롯한 각국 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온 소식과 그들이 미군포로수용소와 미제가 폭격한 지대들을 돌아본 소식 그리고 그들이 미제를 폭로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실감있게 소개한 소식을 내외에 널리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황포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전세계에 대대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킬뿐아니라 우리측 제안의 원칙성과 정당성을 전세계에 신속정확히 보도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을 반대배격하는 국제여론이 광범히 조성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전시통신보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환경에 맞게 보도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고 보도활동에서 고도의 기동성과 민활성, 조직성을 보장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통신전파를 한시도 멈추지 말고 전파싸움에서 승리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를 위하여 통신사안에 엄격한 혁명적규율과 사업체계를 세우고 통신보도일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강력한 전투대오로 꾸리며 적들의 폭격과 파괴책동으로부터 통신시설들을 철저히 보호할뿐아니라 그 능력을 높이며 변화되는 정황에 따라 송수신대책을 기동성있게 세우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전시통신보도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줄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통신보도방침을 명확히 밝혀주심으로써 조선중앙통신은 전쟁 첫날부터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영웅적성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 원쑤

들에게 죽음을 주는 위력한 폭탄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통신보도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시환경에 따르는 통신보도사업체제를 세워주시어 통신보도가 전쟁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전시환경에 맞게 통신사의 모든 사업체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내각비상회의에서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데 이어 여러차례에 걸쳐 통신사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통신사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는것은 전시통신보도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의 모든 사업이 전쟁승리를 위한 보도선전에 집중되도록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전반을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에 따라 조선중앙통신사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전시환경에 맞게 개편하며 통신사의 모든 일군들이 군사명령체제에 의하여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의 전반적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도록 하시면서 특히 전시보도선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보도에 대한 사업체제를 확립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가 군사위원회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군사보도를 통일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사업체제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사보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 보도부를 나오게 하시고 여기에 통신사기자들을 파견하도록 하시는데 한편 통신사가 보도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군사보도를 기동적으로 취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통신사사업체제는 짧은 시일안에 전시체제로 개편되게 되었으며 통신사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선과 공화국남반부해방지역에 대한 통신보도활동을 강화할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체제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1계단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신속한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전쟁의 국면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인민군대가 남으로 진격하던 첫 시기에 벌써 장차 해방될 공화국남반부지역에 통신사지사들을 설치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진격속도가 대단히 빠른것만큼 통신사에서 선발대를 파견하여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는 즉시 적의 통신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고 통신사선발대를 핵심으로 하여 서울충지사를 설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보도일군선발대를 파견하도록 하시는데와 함께 인민군대에

는 서울을 해방하는 즉시 적들이 경영하던 통신사의 시설들을 장악할데 대한 과업을, 내무성일군들에게는 통신보도일군들이 무사히 들어가 활동할수 있도록 돌봐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인민군대는 적의 아성이였던 서울에 진격하자 그곳에 있는 통신사의 시설을 장악하였으며 내무성일군들은 통신보도일군들의 활동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주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된 직후인 7월 1일에 중앙통신사 서울총지사가 조직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 총지사를 설치한데 이어 이미 해방된 도들에 중앙통신사지사들을 시급히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앞으로 다른 도소재지들도 해방되는 차례로 거기에 지사를 하나하나 설치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8월말까지 인천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지들과 남강원도 춘천시에 통신사지사들이 조직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지역에서 정연한 통신보도기구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본사의 지휘밑에 통신보도활동을 기동적으로 벌릴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통신보도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통신보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변화되는 전시환경에 맞게 전선과 해방지역에 대한 소식을 기동적으로 보도할수 있는 통신사기구체계를 세워주신데 이어 통신보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9(1950)년 6월 27일 공화국남반부실정을 잘 아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일군을 통신사전권대표로 파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통신사전권대표가 해방지역에 총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공화국남반부해방지역에서 통신보도활동을 벌릴수 있는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실무에 유능하며 경험있는 통신보도일군들과 무전수들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적통신보도기관에서 복무하던 사람들가운데서 우리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망라시켜 통신보도일군대렬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통신보도일군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해당 시기 당정책과 인민군대의 혁혁한 전과들, 해방지역에서의 력사적변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보도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환경에 맞게 통신사의 기자, 무전수들을 종군시키며 종군기자들의 취재를 잘 보장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부대들에 나가 보도활동을 벌리는 종군기자, 종군무전수 등 통신보도일군들에게 친히 수표하신 신임장을 수여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업조건을 보장하여 줄데 대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민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종군기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 신심과 정열에 넘쳐 취재활동을 더욱 전투적으로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군기자들의 사업방향과 활동원칙을 밝혀주시었을뿐아니라 취재보도활동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군기자들이 전선부대와 함께 생활하고 사업하여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군기자들이 최전선부대들에 나가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제때에 본사에 보낼수 있도록 모든 활동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었다. 주체39(1950)년 8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를 따라 멀리 남해안까지 진출한 통신사 종군기자들가운데서 일부 기자들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으로 임명하시고 그들이 전선과 본사를 더욱 민활히 래왕하면서 보도활동과 연락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승용차를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높은 신임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통신보도일군들은 오직 수령님과 당만을 믿고 가렬한 전투속에서도 싸움의 길을 곳곳이 걸을수 있었다. 그들은 항일전의 출판일군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본받아 한손에는 펜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잡고 취재집필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모든것을 전쟁승리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출판보도부문의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통신보도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도활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다.